

기초과학 세계석학들, 전북대에 결집

G-램프 사업단, 6~7일 국내외 선도 연구자 초청 첫 국제포럼… 로버트 테일러 교수 등 석학들 연구동향 공유

전북대학교에 기초과학 분야 세계 석학들이 모인다.
5일 전북대 G-램프 사업단(사업단장 김희선)에 따르면 오는 6~7일 이틀간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국내외 기초과학 분야 선도 연구자를 초청해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해 250억 원 규모의 교육부 '대학 기초연구사업(G-LAMP)'에 선정된 바 있다.
G-램프 중점태양연구소인 물질에너지기초과학연구소를 구축하고 있는 전북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자들에게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물질·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국제 공동 연구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북대 G-램프 사업단은 국제포럼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해 각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로버트 테일러(Robert Taylor)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을 이용한 단일 광자 발생기 개발을 통해 0차원 구조의 새로운 광학적 응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의 이세희 교수는 '배터리 분야의 혁신적 연구'를, 중국 칭화대학교의 김기환 교수는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시뮬레이터 개발'에 관한 최근 성과를 공유한다.
이 외에도 반도체 분야의 석학인 미국 휴스턴대학교의 류재현 교수는 '반도체 기술의 최신 동향'을 다룬 특강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전북대 교수진의 강연도 이어진다. G-램프 사업에 참여하는 김대위 교수(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등 15명의 전북대 G-램프 사업 참여 교수들은 각각 자신이 연구하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성과와 연구 동향을 발표하며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희선 사업단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대 G-램프 연구진과 세계 각국의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학문적 교류와 국제협력을 끌어내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과 학문적 진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올림픽 유치, 도민에게 자부심”

박진배 전주대 총장, 2036 올림픽 유치 챌린지 동참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이 2036 하계 올림픽 전 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 전했다.



화 태권도 공연을 선보였다. 아울러, 하계올림픽 평가 실사단의 무주 태권도원 방문 시,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의 공연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5일 전주대에 따르면 박진배 총장은 지역 주민의 올림픽 개최 열망과 지지가 하계올림픽 유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다양한 도민의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앞서 전주대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말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지원하고 태권도를 통해 전북 지역 문화와 관광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 특

다.
박진배 총장은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며, 도민들에게 자부심과 함께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주대학교는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진배 총장은 릴레이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우석대학교 박노준 총장과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을 지목했다.

/장은성 기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병원성 기전 밝혀

전북대-중앙대-국립축산과학원 공동 연구 세계적 저널 게재
“학연간 협력 통해 감염병 제어 위한 중요한 기술적 발판 마련”

전북대학교 김원일 교수(수의과대학) 연구팀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중앙대학교 김준모 교수팀 등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됐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PRRS 바이러스는 돼지에서 번식 장애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양돈 업계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연구팀은 PRRS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약 1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피해액이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연구 성과의 핵심은 PRRS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른 호흡기 감염 경로 차이를 규명한 것이다. 연구팀은 4주령 돼지에 저·중·고 병원성의 PRRS 바이러스를 접종, 임상 증상과 기관지 내 세포의 유전자 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원일 교수팀(사진 왼쪽부터 김승채(1저자), 김원일(교신저자), 김원주(2저자)).

현을 분석해 면역반응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바이러스가 폐포 대식세포를 감염시키고, 이 대식세포가 면역 관련 대사 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빠르게 증식해 간질성 폐렴을 일으키며 면역세포를 감소시키는 반면, 중·저 병원성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폐 손상을 보였다. 또한, 감염된 대식세포가 비감염 대식세포

를 감염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병원성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제1저자 김승채 박사과정)됐다.
김원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학연간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을 제어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더욱 진전된 협력 연구를 통해 PRRS 바이러스 억제제 등의 상용화로 이어진다면 이로 인한 양돈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윤호백 과장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PRRS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올해 첫 시행 ‘학교자율시간’ 활성화 총력

전북교육청, 학교자율시간 전문화 되기 매뉴얼 등 제작·보급… 강다산도 구성 지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자율시간 활성화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자율시간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를 보급하고, 역량 있는 강사를 지원한다.
이는 지역과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일부 시수를 확보해 교과 이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운영하게 된다.
5~6학년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율시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학교자율시간 현장 지원자료인 학교자율시간 전문가 되기 매뉴얼과, 학교자율시간 활동 모음을 제작해 2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자료에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과목 및 활동 설계·운영 방법 등이 담겼다.
또한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한 교육과정 설계안, 승인 신청서, 자체확인 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자율시간 활성화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5일 2층 강당에서 강사단 역량 강화 연수 및 협의회를 진행했다.

크리스트, 설문지 등 각종 서식도 포함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역량 있는 강사단도 구성해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연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이날 2층 강당에서 강사단 역량 강화 연수 및

협의회를 진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자율시간 자료 보급 및 강사 지원을 통해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습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초·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받을 학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학력이나 문해 능력이 낮은 성인을 대상으로 글을 읽고 쓰는 능력과 생활 속 문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1~3단계(1~6학년)와 중학교 1~3단계(1~3학년)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습자는 연중 모집하며, 시험을 통해 단계별 편입도 가능하다.
수업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초등과정은 국어, 수학 등 240시간을, 중학 과정은 4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각 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기초 문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 교육 △키오스크 △컴퓨터 활용 수업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문해교육도 이뤄진다.
올해는 군산학생교육문화관과 전주 주부평생학교, 익산행복학교 등 도내 11개 시군, 20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063-239-3452)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올해 유아교육 정책 방향 안내

전북교육청, 유아교육 정책사업 설명회 개최
소규모 유치원 여건 개선 등 공모사업도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 전북유아교육 정책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업유치원 원장 및 유아교육 업무담당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올해 유아교육 정책방향을 안내하고, 공모사업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유아교육분야 공모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유아교육과정담당, 유보통합담당, 유아교육진흥원 순으로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전북유아교육은 '바른 인성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전북유아교육'을 비전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유·초 연계 이음하기 시범운영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소규모 유치원 여건 개선 △교사연수회 운영 지원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미래교육 내실화 방안,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안내, 2025년 추진될 유보통합 정책 및 유아교육진흥원 신규사업 등을 공유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바른 인성을 가진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아가 행복한 교육을 통해 더 특별한 전북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문화예술음악연구센터, 전국 피아노 콩쿠르 입상자 연주회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문화예술음악연구센터는 제3회 전국 피아노 콩쿠르 입상자 연주회를 지난달 교내 60주년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2024년 말에 열린 제3회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들을 초청해 이뤄졌

으며, 연주자들은 나이를 뛰어넘는 완성도 높은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매년 개최되는 원광대 전국 피아노 콩쿠르 입상자 연주회는 음악인재 발굴의 장으로서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